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07.11.(화) 제23-077호

◆ [Focus] 2022년 세계 해외투자 동향(UNCTAD 2023 보고서)

◆ [What's News]

- (미중관계)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및 현지 반응
- (IPEF) 인도·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4차 공식협상 개시
- (핵심광물) 국제에너지기구(IEA), 2023 핵심 광물 시장 검토 보고서 발간
- (수입규제) FDA, 항암제 부족에 중국산 미승인 의약품 추가 수입 허용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[투자동향] 2022년 세계 해외투자 동향(2023 UNCTAD 보고서)

- UNCTAD, 2023 세계투자보고서(World Investment Report 2023) 발간(7.5)
 - 동 보고서는 UNCTAD의 연례 대표 발간물로 올해의 부제는 “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”(Investing in Sustainable Energy For All)
 - ※ '22년 : 국제 세제 개혁과 지속가능한 투자(International Tax Reforms and Sustainable Investment)
 -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2030 지속가능 성장 목표(SDGs) 달성을 위한 투자의 격차가 심화됨을 지적('15 USD 2.5조/연 → '22 USD 4조/연)
 - * 2015년 대비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3배로 늘었으나, 대부분이 선진국에 집중
 - '22년 연간 개도국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약 USD 5,440억, UNCTAD 추정 연간 필요액인 USD 1.7조에 미달
 - '22년 해외투자는 전년대비 12% 감소한 USD 1.3조 기록
 - 단, 투자 총액은 감소했으나 개도국 투자액(+4%)과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 발표 건은 증가, 각종 악재 대비 “선방”
 - 미국(\$2,850억)과 중국(\$1,890억)은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, 해외투자진출은 미국(\$3,730억), 일본(\$1,610억), 중국(\$1,470억) 순으로 활발

□ 2022년 지역별 해외투자 동향

< 2022 투자국 Top 5 >



[자료] UNCTAD WIR 2023, 워싱턴무역관 가공

- 미국, 전년에 이어 투자유치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(\$3,880억) 대비 26% 감소
 - 감소 주 요인은 기업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M&A이며, 산업별로는 화학, 컴퓨터·전자제품, 금융 분야 투자유치가 감소
 - 정보통신 분야에는 510억 달러가 유입, 전년 대비 21% 증가하였고, '22년 최대 단일 그린필드 프로젝트(TSMC, \$280억)가 미국에 신고
- 미국, M&A 활동에 힘입어 해외투자 3,730억 달러(+7%) 기록
 - 미국 기업의 국제 M&A 구매액은 역대 최대인 2,730억 달러(+21%), 작년 50억 달러 이상 M&A 딜 40개 중 15개는 미국 기업이 주도
 - 미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와 행정·지원서비스 분야
- 中, 전년 대비 5% 증가한 1,890억 달러 투자유치로 역대 최대 기록
 - 전자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가 활발했으며, 주로 유럽계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
 - * 일부 대기업은 공급망 재편을 위해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보임
 - 국제 M&A는 전년 대비 약 3배인 15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, 가장 큰 규모 딜은 독일 BMW의 현지 합자회사 지분 추가 인수였음
 - * 2위는 미국 COVA Acquisition의 ECARX Holdings(반도체 회사) 합병(\$340억)

- 중국, 전년 대비 18% 감소한 1,470억 달러 해외투자로 “Top 3” 기록
 - 전년 대비 24% 증가한 410억 달러 그린필드 투자 계획 발표, 주요 프로젝트는 CATL(헝가리, \$75억)과 고선(미국, \$24억) 등 이차전지 분야
- 인도, 전년 대비 10% 증가한 490억 달러 투자유치
 - '22년 주요 그린필드 투자는 폭스콘(반도체, \$190억), 토탈(요소, \$50억) 등이며, 그 외 구자라트 제철소 건립을 위한 PF(\$50억)를 포스코에서 지원
 - 인도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16% 감소한 150억 달러였으나, 그린필드 투자 발표액은 전년의 3배를 초과하는 420억 달러
- 한국, 해외투자는 660억 달러, 투자유치는 180억 달러 기록
 - ※ UNCTAD의 순유입액(Inflow 기준)
 - 對한국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는 아람코의 울산 석화단지 투자(\$70억)
 - 760억 달러 규모의 그린필드 프로젝트 발표, 전년 대비 124% 증가
 - * 주요 프로젝트 : 아부다비 그린수소 생산공장(한전, \$10억) 등
- 그 외
 - 러우사태는 양 국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 초래, 우크라이나 유치액 급감('21년 \$70억 → '22년 \$10억), 러시아는 190억 달러 “투자회수(divest)”
 - 역대 최대(330억 달러) 투자유치를 기록한 일본, 440억 달러(+44%)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 계획 발표* 및 해외투자 1,610억 달러(+10%) 기록
 - * 주요 프로젝트 : 마루베니의 해양 풍력 발전소 건설(스코틀랜드, \$120억)
 - 호주, BHP 인수에 힘입어 '22년 해외에 1,170억 달러(+3,341%) 투자

□ 2022년 분야별 해외투자 동향

- '22년 약 1.2조 달러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 발표, 전년 대비 64% 증가
 - 금액 기준 Top 10 프로젝트 중 3건은 반도체 분야였으며, 5건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
 - 세계 에너지 위기로 인해 '22년 채굴(extractive) 산업 투자 신고액 약 8배 증가('21년 \$120억 → '22년 \$950억)
 - * 주요 프로젝트 : 엑슨모빌(가이아나, \$100억), 에미레이트 국영 석유공사(투르크메니스탄 \$75억)

< 2022 분야별 신규 그린필드 발표 현황 >

Sector/industry	Value (Billions of dollars)		Growth rate, 2021-2022 (%)	Number		Growth rate, 2021-2022 (%)
	2021	2022		2021	2022	
Total	739	1 213	64	15 318	17 598	15
Primary	13	97	618	103	118	15
Manufacturing	320	437	37	5 934	5 970	1
Services	406	679	68	9 281	11 510	24
<i>Top 10 industries in value terms</i>						
Energy and gas supply	141	362	157	518	556	7
Electronics and electrical equipment	138	181	31	1 100	1 167	6
Information and communication	106	120	14	3 887	5 024	29
Extractive industries	12	95	718	59	89	51
Construction	49	62	27	332	211	-36
Automotive	39	59	53	718	694	-3
Transportation and storage	36	56	58	765	978	28
Basic metal and metal products	12	43	249	228	225	-1
Chemicals	23	26	12	456	474	4
Finance and insurance	15	22	46	727	1 032	42

[자료] UNCTAD WIR 2023

- 글로벌 밸류체인(GVC) 고의존 산업군, 공급망 재편 흐름으로 투자 활발
 - ※ UNCTAD, 전자·전기 장비, 자동차, 기계·장비, 섬유·의류 산업 등으로 정의
 - '22년 해당 산업군에 3,402건, 약 2,648억 달러의 그린필드 투자 발표
 -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(미국)와 폭스콘(인도) 외 인텔이 아일랜드에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,
 - 자동차 분야는 현대차, 폭스바겐 그룹 등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에 힘입어 약 589억 달러(+53%)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
 - * 현대차(미국, 55억 달러), 폭스바겐(영국 33억 달러 및 스페인 19억 달러) 등

< GVC 고의존 산업군 투자현황 >

Sector/industry	2020	2021	2022	Growth rate, 2021-2022 (%)
GVC-intensive industries				
Value	101 373	197 388	264 813	34
Number of projects	2 796	3 232	3 402	5
<i>Electronics and electrical equipment</i>				
Value	47 714	137 928	180 928	31
Number of projects	888	1 100	1 167	6
<i>Semiconductors</i>				
Value	16 381	84 575	91 608	8
Number of projects	55	111	140	26
<i>Automotive</i>				
Value	35 096	38 567	58 949	53
Number of projects	578	718	694	-3
<i>Machinery and equipment</i>				
Value	7 238	8 061	12 224	52
Number of projects	670	650	727	12
<i>Textiles, clothing and leather</i>				
Value	11 326	12 833	12 712	-1
Number of projects	660	764	814	7

[자료] UNCTAD WIR 2023

□ 에너지 관련 투자 동향

- 에너지 전환으로 니켈, 코발트 등 핵심광물 관련 투자 지난 2년간 급증
 -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으로 주요 핵심광물 수요는 2050년도 현 수준의 최대 10배(리튬)까지 급증할 전망
 - 한 편, 채굴과는 달리 가공·처리 설비의 경우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
- '21년 이후 선진국 대상 신재생 에너지 제조 설비 투자 증가 추세
 - 태양광, 풍력, 이차전지 등 미국에 제조 설비 투자 활발, 특히 최근 2년간 이차전지 관련 프로젝트의 40%가 미국에 발표
 - * UNCTAD 관계자, 리쇼어링·니어쇼어링·프렌드쇼어링이 일어나고 있다 밝혀
 - 중국 기업이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의 약 4분의 1 독점
- 최근 에너지 위기로 선진국발 화석연료 투자 증가
 - '19년 이후 개도국에서의 화석연료 분야 투자는 감소 추세, 이에 따라 개도국은 화석연료 개발에 자체 재원 투입 필요
 - 에너지 안보 이슈로 화석연료 관련 투자 재평가, 선진국에서는 한동안 관련 에너지 시설이 지속 운용될 것으로 전망
 - * 미국의 셰일오일 등 영국, 호주, 캐나다 등지에서 화석연료 투자 재추진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선진국 사이에서 투자 심사 확대되는 추세
 - 현재 37개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투자를 심사, 이들 국가는 전체 해외투자 누적액의 68%를 점유 중
 - 강화되는 심사로 최소 21건, 약 700억 달러 규모의 M&A가 미결
 - WSJ, 유럽의 투자 심사 확대 정책이 중국의 투자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장석일
■ 자료원	UNCTAD(7.5), WSJ(7.5)

□ (미중관계)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및 현지 반응

- (개요) 미 재무장관, 고위급 경제 회담 진행을 위해 방중(7.6~9)
 - 재무장관은 허 리핑 부총리, 류쿤 재정부 장관, 판공성 인민은행 당서기,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 등 고위 관료들과의 회담을 진행
 -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 일정에서 '경제 문제, 국가 안보, 기후 변화 및 글로벌 부채 문제'를 다루었다고 언급했으며, "향후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더 정기적인 소통을 기대"한다고 발언
 - 전문가들은 이번 재무장관 방중 일정을 지난 미 국무장관 방중과 같이 고조된 무역·안보 긴장도를 양국이 완화하려는 의지*로 고려
 - * 7월 내 존 케리 백악관 기후 특사도 방중 예정
- (상세) 의의 및 한계로 위기관리 능력 강화와 현안 해결 부재 지목
 - '22년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신규 구성된 경제 최고위 관료들과의 첫 만남을 성사해 양국 간 경제 대화 채널* 구축에 성공
 - * '24년 미국·대만 대선 등 향후 양국 간 주요 시장 위험 요소 관리 창구로 평가
 - 다양성(Diversifying)*을 강조, 공급망 탈동조화 노력과 중요 공급망 다각화 조치의 차이를 언급하며 관련 우려 해소에 노력
 - * 현지 언론은 Diversifying을 De-coupling, De-risking에 이은 신규 D-word로 주목
 - 국가 안보를 기준으로 한 무역·투자·기술 규제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양국 입장은 공개되지 않아 관련 분쟁은 향후 지속될 전망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■ 자료원	Politico(7.8), NYT(7.9), WSJ(7.10)

□ (IPEF) 인도 ·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4차 공식협상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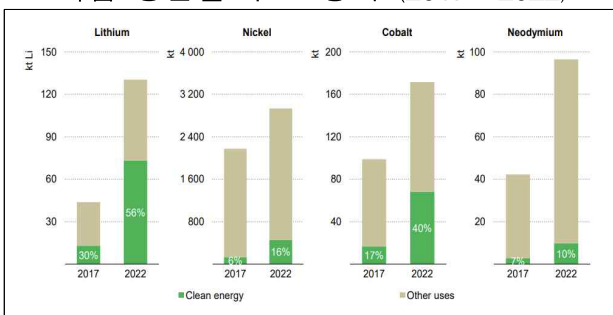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제4차 IPEF 협상 개시, 한국 부산에서 7.9~15일 진행
 - 미국, 일본, 호주, 싱가포르, 베트남, 인도 등 14개국 정부 대표 협상단 650여 명이 7.9.(일)~7.15.(토) 한국 부산에서 IPEF 제4차 공식협상 참여
 - * 美, 상무부 사론 위안(Sharon H Yuan) 고문과 USTR 사라 엘러만(Sarah Elleman) 보좌관 참석
 - 이번 회의는 필라2(공급망) 타결 이후 개최된 첫 공식협상으로, 협정 이행 및 추가 타결 노력 전망
- (상세) 공급망 협정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, 연내 구체적 성과 도출 목표
 - 상무부는 필라2(공급망 협정)의 조속한 발효와 이행(utilization and implementation)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효과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점검하겠다고 발표
 - 샤론 위안 고문은 6.14 CSIS 행사에서 “개별 회원국은 필라 타결을 위한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,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형태의 논의도 고려할 수 있다”고 언급
 - 아울러 필라1(무역), 필라3(청정경제), 필라4(공정경제) 협상에서도 연내 구체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가적인 협의가 계속될 예정
- (참고) 현지 싱크탱크, IPEF 내 한미, 한중 관계 균형 중요성 언급
 - 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참여는 다른 경제 통합 협정과 별개로 한국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, 동시에 IPEF 비회원국과의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
 - IPEF에서 한국의 핵심 과제로 미국과 경제 안보 관계를 심화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인사이드트레이드(7.10), PIIE(7월), 산업통상자원부(7.10)

□ [핵심광물] 국제에너지기구(IEA), 2023 핵심 광물 시장 검토 보고서 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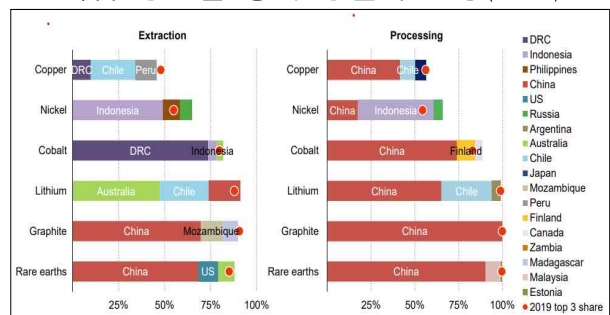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IEA '2023년 핵심 광물 시장 검토 연례 보고서' 공개(7.11)
 - 올해 최초 발간된 해당 보고서는 매년 핵심 광물 관련 투자, 시장, 기술, 정책 등 주요 현안 및 트렌드 전망을 수록할 예정
- (상세) 국제 투자 증대로 공급 부족 만회, 중국 집중도는 여전히 문제
 - 친환경 기술(태양광·배터리 등) 상용화로 2030년까지 수요 2배 증가 예상
 - * 2017~2022년 동안 수요 급증 : 리튬 300%, 코발트 70%, 니켈 40% 등
 - 수요와 가격 급등으로 3,2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(5년간 2배 증가)
 -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 및 경제성과 직결
 -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광물 공급망 다각화 정책 수립 및 추진
 - * 美(Inflation Reduction Act), EU(Critical Raw Material Act), 호주(Critical Mineral Strategy), 캐나다(Critical Mineral Strategy) 등 전 세계 100여 개 정책 존재
 -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 중
 - * 글로벌 광물 채굴 업계의 투자 증가율 : 2021년 20%, 2022년 30%
 - 안전한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기차·배터리 업계 경쟁 과열 중
 - 신속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급 측면의 문제 해결 절실
 - * △안정적 공급량 확보 △조달처의 다각화 △환경·인권을 고려한 책임 있는 생산

< 핵심 광물별 수요 증가 (2017~2022) >



국제에너지기구(IEA)

< 핵심 광물별 상위 생산국 현황(2022) >



국제에너지기구(IEA)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- 자료원 | IEA(7.11), 파이낸셜타임즈(7.11)

□ [수입규제] FDA, 항암제 부족에 중국산 미승인 의약품 추가 수입 허용

○ (개요) 미국 내 항암제 원료 물질 부족 현상 심화

- 특히, 화학 항암제 시스플라틴(cisplatin)과 대체 약품인 카보플라틴(carboplatin)의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,
 - * 의약품 부족은 5년 만에 최고치 기록, 최소 9종의 항암제에 대한 공급이 부족
- 올해 초 미 식품의약청(FDA)의 실사 이후 인도 제약회사 인타스(Intas Pharmaceuticals)가 품질 문제가 발생한 생산공장을 임시 폐쇄한 것이 품귀의 원인이 됨.
 - * 인타스는 미국 내 유통되는 시스플라틴의 50%, 카보플라틴의 20%를 생산

○ (상세) 미 규제 당국, 중국산 시스플라틴 수입 추가 허용 (7.10)

- FDA는 현상 완화를 위해 중국 제약사 치루(Qilu Pharmaceutical Co.)로부터 10개 로트(Lot) 규모의 시스플라틴 수입을 허용했으며, 유통사 아포텍스(Apotex)가 항암제를 차주 반입할 예정
 - * FDA는 치루 社의 시스플라틴 주사액 4로트에 대한 수입을 임시 허용(23.5.24)
- FDA는 승인된 제조업체로부터의 공급이 모든 수요를 맞출 때까지 수입을 계속할 것으로 언급, 미승인된 중국산 의약품 수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
 - * 시스플라틴의 출하량은 1월 급감했지만, 5월부터 회복세를 기록 중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한유림
■ 자료원	Bloomberg Government(7.10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Microsoft Can Close Its Activision Deal, U.S. Judge Rules (마이크로소프트, 액티비전 인수 가능하다 판결)</p> <p>이번 판결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, 현재 진행중인 750억 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탄력. 단, 양 사는 아직 영국 당국의 승인을 대기 중</p>
The Washington Post	<p>NATO to invite Ukraine when 'conditions are met'; Zelensky slams lack of a timeline (나토의 우크라이나 초대에 젤렌스키 “구체적 계획 없다” 비판)</p> <p>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, 조건충족 및 동맹국 동의 시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젤렌스키는 구체적인 시간계획 없는 발언은 공허하다고 지적</p>
The New York Times	<p>Erdogan's Reversal on Sweden Could Signal Warming of Ties With the West (에르도안의 전향, 서방과의 유대 돈독해지나)</p> <p>에르도안, 마침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동의. 그동안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가입 동의 선결 조건으로 반테러 조치 강화 등을 요구해와.</p>
CNN	<p>Inside the Biden administration's push to get Sweden into NATO and F-16s to Turkey (왜 바이든 정부는 스웨덴 나토 가입과 튀르키예 F-16 판매를 추진하는가)</p> <p>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마침내 승인한 가운데, 전향의 중요 사유가 미국의 F-16 판매로 알려져. 수요일 그리스-튀르키예 정상회담이 중대 기로될 것</p>

* 미국 동부시간 7월 11일 17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7.11(화)	6월 NFIB 낙관지수(NFIB optimism index)
7.12(수)	6월 소비자물가지수(Consumer price index)
7.13(목)	6월 생산물가지수(Producer price index)
7.14(금)	6월 수입물가지수(Import price index)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20	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	2023.06월
US23-19	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	2023.06월
US23-18	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	2023.06월
US23-17	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6월
US23-16	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5월
US23-15	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 및 시사점	2023.05월
US23-14	미국 반도체 R&D 지원 정책 방향	2023.04월
US23-13	미 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4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 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센터(CAR) '앨런 아미야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